



스물한번째 이야기

Home to Home

[선교사 선교현장④케냐]



하바리 가니!(How are you!)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지금 아루샤에 있습니다. 벌써 선교지로 온 지만 7년이 되었습니다. 7~8월에 한국에서 그동안 미루었던 6주간의 “온누리 장기 선교사 안식년 훈련 (5년 차)”을 받고, 훈련이 끝나자마자 8월 초 사역지로 다시 돌아

왔습니다. 한국에서 건강히 잘 지내다가 막판에 몸살감기에 걸렸었는데, 거의 회복되었음에도 이곳이 건조하고 춥다 보니 아직도 기침과 가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매일 코피가 나오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1,900m)과 아루샤(1,300m)의 고도 차이로 인해 다시 사역지에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선교지인 케냐와 탄자니아가 더 편합니다. 한국은 혹독한 추위와 더위가 있고 한여름에는 높은 습도 때문에 끈끈하기까지 합니다. 봄과 가을이 짧아진 한국에서 지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일년 내내 가을 같은 동아프리카 날씨가 좋기도 하지만 7080 레트로 감성을 가진 이곳에 돌아오면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것도 없고, 모든 시간이 3배 이상 천천히 가는 듯해서 더 좋습니다.

월요일에는 기관 등록을 위해 흥 선교사와 같이 관공서에 갈 일이 있어서 온라인에 이것저것 올리고, 이곳에 가서 이 서류, 저곳에 가서 저 서류 내고, 돈을 지불하고 다녔지만, 결국 서류 부족으로

다음 날 다시 가야 했고, 지문등록에만 이틀을 소모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지도, 조바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허름한 건물, 낙후된 시스템이 당연하고, 느린 게 편한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루에 한 이슈만 해결하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내일 해도 되고 내일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이런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조건과 수준으로 BEE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은혜요, 기적이 아닐까 생각되곤 합니다.

저는 3일 후 수요일에는 버스로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는 탄자니아 경제 수도인 ‘다레살람’에 갑니다. 11월에 열릴 졸업식을 준비하고, BEE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PC 및 책상 등)을 설치하러 갑니다. 그곳은 1년 내내 한국의 여름과 같은 기후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가도 편합니다. 너무 더우면 일하고 싶을 때까지 쉬면 되는 문화입니다. 무엇을 입어도, 씻지 않아도, 아무런 티가 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먹는 것도 아주 싸고, 열대 과일은 넘쳐납니다. 노동하지 않아도 굶어 죽지는 않지요!

“홈투홈” 선교사 재(보수)교육 프로그램은 5년 차 이상 현지에 있는 선교사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6주간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10년 차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4주간의 “홈투킹덤” 교육이 있습니다. 한 term(통상 5년)을 마친 선교사들이 ‘언팩킹(unpacking)’이라는 이름으로 선교지에서 있던 어려움을 풀어내고, 선교에 대한 실무와 최신동향을 배운 후 마지막 주에는 다시 ‘리팩킹(repacking)’의

이름으로 상처와 선교지의 어려움을 넘어, 다시 선교지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정말로 검은색 큰 백팩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 기간에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를 나와 20년의 군 생활을 뒤로하고 전도사 생활 3년, 선교사 훈련 및 BEE 본부 근무 1년, 선교지로 나와서 7년 동안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기에 군(軍)과의 큰 교류 없이 지내 왔습니다. 군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패배 의식도 있었고요. 그런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요 4:44)”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훈련 중 주말을 이용하여 3곳의 해군교회에 가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기억들의 파편들이 맞춰지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마지막 주 일에는 국방부 옆 국군 중앙교회에 가서 해외 군선교에 대한 브리핑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통치에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잠시 ‘본향’에 대한 생각들을 적어봅니다. 이제 점점 선교지가 고향인지, 한국이 고향인지, 제가 살아왔던 군 또는 가족이 있는 서울이 고향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정체성도 모호해지고 있고요, 케냐와 탄자니아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현지인들이 저를 중국인이냐고 놀리곤 합니다. 그럴 때 저는 “니나토카무빙구니(나는 하늘나라에서 왔다.)”라고 말하면 놀리던 입들이 다물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니나말라이카(나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야)”라고 하면 한바탕 웃고 저를 잘 대해 줍니다.

최근 신앙적인 이슈는 ‘마지막 때’에 대한 묵상입니다. 선교에 있어, 아니 신앙에 있어 영접(갈라디아서, 로마서 등)과 성화(그리스도인의 생활 등)에 관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영화(히브리서)와 같은 소망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환란 가운데에도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은 것은 바로 ‘소망에 대한 신앙’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는 이단 교회들에게 너무 많이 이슈로 침식당해서 건강한 교회에서도 이에 관한 이야기를 쉽게 못 하는 분위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가 BEE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더 많은 교재가 나와서 선교지에서 교육되길 희망합니다.

“본향”에 관한 성경 말씀을 나눔으로 이 글을 마치려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14:1-3)’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고후5:1-2)’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느니(빌3:20-21)’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히11:14-16)'



[글 신동준 선교사 정리 정주영 편집 최선]

BEE 소식

1. 2023년 “나는 빛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빛진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헬라어나 아만안이나 자제 있는 자나
 여러색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롬1:14).”

2. 23년 하반기 아웃리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BEE 단기사역(아웃리치) 신청 안내

✓아프리카

1. 10/07-14: 케냐(WLICC)
2. 10/15-23: 탄자니아(WLICC)
3. 10/24-31: 졸업식(라이베리아, 가나, 토고)

✓필리핀

1. 8/22 - 26 부두안(민다나오): 히브러서 세미나
2. 8/28-9/01 까비테(마닐라 근처)
 졸업식(28 일), FTS: 31-9/01

✓네팔

- 11 월 초 중순(졸업식)

✓인도네시아 - 마람

- 10 월말(슬라웨시, 졸업식 및 FTS)

✓참고사항:

나라별 전체 일정이 아니라도
 단위별 일정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신청 및 문의
 해외사역본부(안지민)



3. 9월 16일(토) 10:00에 2023-2 FTS 개강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헌신하는 6명의 인도자
 훈련생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